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난가 실거래 기준가 발표 거품제거, 유통활성화 기대

파이생산과 소비침체로 채란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과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란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발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생산자와 유통상인의 이해 부족으로 무산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산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아픔을 감수해 가며 채란농가에서 실제로 수취되고 있는 거래 기준가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산지가격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생산자들이 절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난가는 기준은 있으되 유통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감안하여 발표된 것과 같아 할인 폭 때문에 생산자와 상인간의 불협화음, 납품상인과 계란소비처와의 가격 결정에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활성화가 이룩되지 못하여 왔었다.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그 어느 나라의 생산자도 받고 싶은 수준에서 난가가 유지 되기란 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경제학을 전공한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다.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채란양계인들은 새로운 가격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도전장을 낸 셈이다. 내가 열마리를 수취해야 “바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

는지 늘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생산이 과잉되어 실제 수취가격은 46원 정도인데, 실거래 가격이 유통 가격인 도매가격 개념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71원은 늘 채란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세무서, 소비자에게 어려울 때는 어렵다는 호소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고통을 감수해가며 시행하는 산지가격제도 정착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양계산물의 생존전략 국제·국내시장 동향에 보조 맞추어야

세계 여러 나라가 각자 생존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내노라하는 박사에 석학까지 앞세워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 양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시대변화의 흐름상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그나마 수십년 투자한 양계장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진다.

과거 19세기 구미 열강들이 아시아 또는 남미, 아프리카 대륙의 미개국을 마치 물빠진 우물에서 고기를 잡듯이 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 빼앗아 가는 일도 있었다. 우리 민족도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21세기에 접어든 현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교통과 매스컴이 발달하여 대량 학살이 없을 뿐이지 먹을 것을 앗아간다는 것은 같다고 보여진다. 개념이 변하여 교역

이 확대됨에 따라 1차 산물의 먹거리를 직접 가져가지 않고 향후 자국에 이익이 될 듯한 경제권, 개발권 등을 국제협약이란 미명 하에 묶어 둠으로써 결국 필요에 의해 모든 경제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사항은 국가간의 문제이고 이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국익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산업 우선 정책일 것이다.

양계인들은 국민보건과 식량의 증진을 위해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만큼 늘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들끓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일부 농업관련 법인이 상장을 했다하지만 전체 농가가 상장 법인이 되기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를 위해 어찌보면 소비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실 농업인 양계업은 육성 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이 점점 낮아져만가는 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공산품 수출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국인 칠레나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태국산 계란과 닭고기 수입은 아마도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비책 마련은 커녕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구조를 갖게 되어 양계인들이 그동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훌린 땀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오고 말았다.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자니 희생이 크고, 계획

경제 방식을 택하자니 막대한 공적자금과 조직력에 한계가 있어 사면초가에 놓인 격이 된 듯하다. 양계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십시일반 생산량을 줄인다면 몰라도 타의에 의해 과잉된 생산량이 감소케 된다는 것은 감소하는 만큼 탈락하는 농가가 생길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양계인들은 국제동향과 냉혹한 국내동향을 다시금 이해하고 시장규모에 맞는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닭 생산성 향상의 실종 위기 기반붕괴 가속화 우려

경제위기 이후 양계인은 물론 양계관련업계의 자진 참여로 생산을 줄여 줄줄이 도산 위기를 넘겨 다행으로 여겼으나, 이어 가격이 안정되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양계인들이 앞다투어 생산량을 늘인 결과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채란업의 경우 극한 상황에까지 다다라 참으로 암담한 실정에 처해 있다.

충남에서 상경한 한 양계인은 이미 정당을 찾아가 삭발과 함께 농성까지 하는 처절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지경까지 이르자 일부 부채가 많은 농가가 야밤도주까지 한다는 흥흉한 소문까지 번져 분위기마저 해치고 있다.

이쯤 되고 보니 양계업 경영 중 가장 중요시 되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실종되어 가는 중에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현장에서 도산 위협이 계속되자 기초 백신조차 실시되지 않는다는 현상은 앞으로 양계업이 정상을 되찾더라도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 후유

증을 낳게 된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설사 회복이 된다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호황이 찾아오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 이래저래 어려움 극복이란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부채규모가 높아 생산비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수입 가능성이 높다. 몇 차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품질 고급화와 공급·소비체계를 바꾸어 식란을 국내산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듯이 이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황 뒤에 호황을 막연히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도 질병 때문에 양계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불황에 접어들어 채산성이 악화되자 질병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데, 차후 박멸을 하려고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질병까지 방치된다면 양계업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또다시 많은 양계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불황 극복은 경쟁력이 없는 농가가 빨리 탈락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감산을 하여 생존하는 것이었다.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길만이 불황 극복과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양계**